

혹하게 계급투쟁을 이끌어온 것이 부르조아지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히 '부정들'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조직화되기 전에 그리고 의식을 발전시켜 반격을 가하고 이어서 권력을 획득할 때까지 공격을 가하기 전에, 우선 부르조아지의 계급투쟁에 저항했을 뿐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또한 맑스의 과학적 이론이 계급투쟁에 모든 것이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준다면, 우리는 역사에 선례 없는 이 사건, 즉 맑스의 이론과 노동운동의 '결합'의 동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해보지 않았다. 왜 그리고 어떻게 맑스와 엥겔스가 『선언』을 쓰기 전에도 존재했던 노동운동이 『자본론』과 같은 어려운 저작 속에서 발전되었는가?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 즉 계급투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일상적 실천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맑스 이론의 핵심에 있는 『자본론』의 핵심에 놓여 있다. 맑스는 그가 정치적 경험으로서 노동운동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과학적 이론으로 노동운동에 돌려주었다.

마요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계급투쟁을 잊지 말자."

(1970. 1.)

##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연구를 위한 노트"

### 생산조건들의 재생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얼마 전,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 생산수단들을 갱신시킬 필요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분석 속에서 언뜻 비쳤던 몇 가지 것들을 명확히 해야겠다. 그때는 지나가는 지적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그 자체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맑스가 말했듯이, 만약 하나의 사회구성체가 생산을 함과 동시에 생산의 조건들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년도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딘아이쥬크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의 최종적인 조건은 생산조건들의 재생산이다. 그것은 (이전의 생산조건들을 그 대로 재생산하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확장시키는) '확대된' 것일 수도 있다. 당분간 이 마지막 구별은 재쳐놓기로 하자.

그러면 생산조건들의 재생산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자본론』 2권 이후) 아주 친숙하지만 동시에 특히 이해하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영역에 접어들다. 오직 생산이라는 관점, 더구나 단순한 생산활동(그 자체도 생산과정에 비하면 추상적이다)이라는 관점의 집요한 자명성(경험주의적 유형의 이데올로기

1) 『맹세』 131호(1970년 6월). 이 논문은 본래는 보다 긴 연구의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루셀린에게 보내는 편지(1868년 7월 11일).

적 지명성)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과 너무나도 잘 일치하여, 재생산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관점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추상적인 채로 남는다(부분적이라기보다는 왜곡된 것이다)——생산의 수준에서조차. 하물며 단순한 활동의 수준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설명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우리가 모든 사회구성체는 하나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생산과정은 한정된 생산관계 안에 그리고 그 아래 존재하는 생산력을 이용한다.

그 결과,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회구성체는 생산을 합과 동시에, 그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1) 생산력, 2) 현존하는 생산관계를 재생산해야 한다.

### 생산수단들의 재생산

맑스가 '자본' 2권에서 그 논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전국적 회계에 종사하는 부르조아 경제학자나, 현대의 '거시경제학 이론가들이 포함된다) 그때부터, 생산조건들의 재생산, 즉 생산수단들의 재생산이 보증되지 않는 한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초의 자본가와 구별되지 않는) 최초의 경제학자는, 매년 생산 속에서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것들, 즉 원료·고정설비(건물)·생산 도구(기계) 등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양자 모두 기업의 관점을 표현하면서 단지 기업의 회계재정 활동의 항목들을 설명하는 데 만족하는 한에서 최초의 경제학자=최초의 자본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백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케네의 재능 덕분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맑스의 재능 덕분에, 물질적 생산조건들

의 재생산은 기업의 수준에서 사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조건들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기업의 수준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재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사고하게 하지만, 전혀 그 조건들과 메커니즘을 사고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만 숙고해보면 된다. 제사공장에서 모직물을 생산하는 자본가 X씨는 그의 원료와 기계 등을 '재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생산을 위해 그것들을 생산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이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무양양자 Y씨, 기계공구를 생산하는 대제철업자 Z씨 등등. 그들 또한 X씨 등의 생산조건들의 재생산을 조건짓는 생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해야 한다 등으로 계속된다——이 모든 것은, 국내시장과 그리고 세계시장에 있어서도 (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의해 충족되는 비율로 이루어진다.

일종의 "끝없는 실"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전체적인' 추론을 따라가야 하고, 특히 『자본론』 2권과 3권에 있는, 1부분(생산수단의 생산)과 2부분(소비수단의 생산) 사이의 자본유통관계와 잉여가치의 실현을 연구해야 한다.

### 노동력의 재생산

그러나, 틀림없이 무언가가 독자의 머리에 스칠 것이다. 우리는 생산수단들의 재생산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 생산력의 재생산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수단들로부터 생산력을 구별짓는 것, 즉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지나쳤던 것이다.

만일,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찰과 특히 감가상각-투자를 예측하는 재정-회계적 활동 업무가, 우리에게 재생산이라는 물질적 과정의 존재를 개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면, 이제 우

라는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찰이 강그리는 아닐지라도 거의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영역에 들어선다. 왜냐하면 확실한 노동력의 재생산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것은 노동력에 재생산의 물질적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즉 임금에 의해 보장된다. 임금은 기업의 회계 속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본(capital main-d'oeuvre)'<sup>3)</sup>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임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다. 왜냐하면 임금이란 단지, 노동력의 지출에 의해 생산된, 그 재생산에 필수적인 가치부분을 표현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의 회복(의식주, 즉 내일——어김없이 찾아오는 매번의 내일——기업의 장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가 되는 데 필요한 것)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것은, 그 속에서 포롤레타리아가 노동력으로서 재생산되는(x를 본보기로 들자면, x는 0, 1, 2 등과 동치될 수 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수적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이 가치량(임금)은 단지 '생물학적인' SMIG.(법정최저임금——역주)의 필요분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역사적인 최소한의 필요분에 의해 결정된다(맑스는 영국노동자에게는 맥주가 필요하고 프랑스 포롤레타리아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이 최저선은 이중으로 역사적이라는 점을 지적해두자. 그것이, 자본가계급에 의해 '인정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인 필요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의해 강요된 역사적인 필요분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그것은 이 중의 계급투쟁인데,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항하는 투쟁

3) 맑스는 그것에 가변자본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을 부여했다.

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의 하락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노동력이 노동력으로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처음 가능한 노동력이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즉 생산과정의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이용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생산력의 발전과, 주어진 순간의 생산력을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통일의 형태는 다음의 결과를 산출한다: 노동력은 (다양하게)——즉 서로 다른 '직위들'과 '직무들'로의 노동의 사회-기술적 분할에 대한 요구들에 따라——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그렇게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의 (다양화된) 자격의 이러한 재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보장되는가? 노예제나 봉건제의 사회구성체들에게서와는 달리, 노동력의 자격의 이러한 재생산은 더 이상 '현장에서'(생산 그 자체 속에서의 견습)가 아니라, 점점 생산의 바깥에서——자본주의적 학교교육 체제에 의해, 그리고 또 다른 심급과 기관들에 의해——보장되는 경향(경향적인 법칙이 문제다)을 가진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다소 연구 속으로 멀리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읽기·쓰기·셈하기를 배운다. 그리하여 몇 가지 기술들과 그 외에도 꽤 많은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속에는 생산의 여러 직위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한(하나의 교육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하나는 기술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는 엔지니어들에게, 마지막은 고급간부들에게 등) '문화적'이거나 '과학적인' 교양의 요소들(초보적인 수도 있고 반대로 심화될 수도 있는)이 포함된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노-학우'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기술과 지식들 외에, 그리고 또한 바로 그 경우에 사람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용법의 '규칙'들을, 즉 노동의 분할의 모든 대리자들이 정하도록 '지정된' 직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규칙들——윤리의 규칙들, 공민적 그리고 전문적 의식의 규칙들, 명확히 말해서 노동의 사회-경제적 분할에 대한 준경의 규칙들, 그리

고 결국 계급지배에 의해 세워진 질서의 규칙들——을 배우게 된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한 '포랑스어를 잘 말하는 법', '문서작성을 잘 하는 법' 즉 사실상 (미태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고용인들에 있어) '잘 명령하는 법' 즉 (이상적인 해결로서) 노동자들에게 '잘 말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이 사실을 보다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그 자격의 재생산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워진 질서의 규칙들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을, 즉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을, 한편 착취와 억압의 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또한 '말을 통해' 지배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잘 다루는 능력의 재생산을 요구한다.

탈리 말하면, 학교(그러나 또한 교회와 같은 국가의 여타 기관, 또는 군대와 같은 여타 장치들)는 '노-허우'를,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이나 그 '실천'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형태 속에서 가르친다. 모든 생산의 대리자들과 착취와 억압의 대리자들은 ('이데올로기의 전문가들'(람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임무——파착취자(포를테타리아)건, 착취자(자본가)건, 착취의 보조자(간부)건, 지배 이데올로기의 계사장('관리'들)이건간에 동등——를 '의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혹은 저런 방식으로 이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재생산은 그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자격'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 또는 이 이데올로기의 '실천'의 재생산을 요구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또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자격의 재생산이 보장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형태 속에서, 그리고 그 형태들 아래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현실의 실재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재생산에 관한 우리의 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생산력, 즉 한편으로 생산수단들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의 형태들을 간략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산양식에 관한 람스주의 이론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그것을 침묵 속에서 지나친다는 것은 이론적인 누락일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쁘게는 중대한 정치적 과오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단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커다란 우회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주목할 점은, 이 우회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옛 질문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란 무엇인가?

###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우리는, 헤겔의 '총체성' 개념과 구분되는, '사회적 전체'라는 람스주의적 견해의 혁명적 성격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다.<sup>4)</sup> 우리는 (이테제는 역사유물론의 유명한 명제를 다시 취하는 것일 뿐인데) 람스가 모든 사회의 구조를, 특수한 결정에 의해 분절되는 '수준들'과 '집합들', 즉 하부구조 또는 경제적 토대(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와, 스스로 두 가지 '수준' 또는 '집합', 즉 법률-정치(법과 국가)와 이데올로기(종교적·윤리적·법적·정치적인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상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헤겔로부터 람스를 구별짓는 차이를 볼 수 있게 하느) 그 이론적-교육학적 이익 외에도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4) 「람스를 위하여」, 「자본론 읽기」에서.

이점을 제공한다: 즉 그것은 그 본질적인 개념들의 이론적 장치 속에, 우리가 각각의 효과지표라고 부른 것을 기입한다. 그것은 무엇임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 즉 모든 사회의 구조들, 하나의 토대(하부구조)와 그 위에 세워진 두 층의 상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이, 하나의 비유, 아주 정확히는 공간적인 비유, 즉 범론(topique)<sup>5)</sup>의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 이 비유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보게 한다. 무엇을? 자, 바로 이것을: 만일 위층들이 정확히 토대 위에 놓여 있지 않는 한, 그것들은 완전히 홀로 (허공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건물이라는 비유의 목적은 그러므로, 무엇보다 경제적 토대에 의한 '최종심에서의 결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공간적 비유의 효과는 그러므로 '경제적 토대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한, (상부구조의) '층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최종심에서의 결정'이라는 유명한 표현 아래 알려진 효과지표를 토대에 부여하는 것이다.

'최종심에서의' 이 효과지표에 입각하여, 상부구조의 '층들'은 상이한 효과지표들에 의해 명백히 영향받는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표인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상부구조의 층들은 최종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것들은 토대의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그것들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토대에 의해 결정되는 한에서이다.

토대에 의한 최종심에서의 결정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상부구조의 효과(또는 결정)지표는 맑스주의의 전통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사고되어왔다: 1)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한다, 2)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작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주의적인 범론, 즉 건물의 공간적 비유(토

대와 상부구조)의 커다란 이론적 이점은, 그것이 결정(또는 효과지표)의 문제기. 중요함을 보게 함과 동시에 모든 건물들을 최종심에서 결정하는 것은 토대임을 보여준다는 것, 따라서 상부구조에 "고유한 '부착적' 효과의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즉 맑스주의 전통이,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과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결합된 표현 아래 지시하고자 했던 바를 사고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회의 구조를 건물이라는 공간적 비유 속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의 가장 커다란 부작할성은 명백하게, 그것이 은유적이라는 점, 즉 기술적(descriptive)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것들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고전적인 비유를 전혀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내던지기 위해 넘어서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기술이라는 형태하에 우리에게 제공된 것을 생각해보고자 할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부구조의 존재의 본질과 본성을 특징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은, 재생산의 관점에 입각해서이다. 건물이라는 공간적 비유가 개념적 해답을 제공함 없이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산의 관점에서 서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이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따라서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재생산의 관점에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범 · 국가 · 이데올로기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활동과 생산의 관점에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재생산의 관점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 국가

맑스주의적 전통은 명백하다. 『공산당선언』과 『브뤼메르 18일』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고전적 문헌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빠리 코뮌에 관한 맑스의 저작과 『국가와 혁명』에 관한 레닌의 저작 속에서) 국가는 명백히 억압적 장치로 인식된다. 국가는 지배계급들(19세기에는 부르조아계급과 대지주·계급)로 하여금, 노동자계급을 잉여가치의 수탈(즉 자본주의적 착취)과정에 종속시키기 위해 그들을 지배하도록 보장해주는 외안 '기구'(machine)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맑스주의 고전가들이 국가장치라고 불렀던 것을 의미한다. 그 속에는 우리가 법적 실천의 국가들에 입각해서 그 존재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특수화된 장치, 즉 경찰·재판소·감옥들만이 아니라 또한 경찰과 그 특수화된 보조체들이 '사전들로 넘쳐날 때' 최종심에서의 보조적인 억압적 힘으로서 직접 개입하는 (프로테타리아트는 피의 대가로 이 경험을 얻었는데) 군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국가의 우두머리, 즉 내각과 행정부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맑스-레닌주의 국가 '이론'은 그 본질에 다다르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장치는 국가를 부르조아지와 그의 동맹자들에 의한 프로테타리아트에 대한 계급투쟁 속에서 '지배계급들에 봉사하는' 집행과 억압적 개입의 힘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국가장치가 바로 국가이며, 진정으로 국가의 근본적 '기능'을 규정한다.

## 기술적인 이론으로부터 이론 그 자체로

그러나, 우리가 진물의 비유(하부구조와 상부구조)와 관련하여

지적인 바 있듯이, 국가의 본성에 대한 이 표현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채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 형용사(기술적인)를 사용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므로, 모든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진물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혹은 맑스주의 국가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대상에 대한 기술적 개념이나 표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비판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의당,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가 기술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국면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이론의 최초의 국면인 것이다——최소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사회구상체의 과학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면을 과도적이며 이론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국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우리의 생각으로는 간주해야 한다). 그것이 과도적이라는 사실은, (용어의 결함에서 일종의 '모순'에 상당하는) '기술적 이론'이라는 우리의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사실 이론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덧붙여진 '기술적'이라는 형용사와 부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1) '기술적 이론'은 의심할 나위없이 이론의 들이킬 수 없는 시작이라는 것, 그러나 2) 이 이론이 표현되고 있는 '기술적' 형태는, 그 '모순'의 결과, '기술'의 형태를 넘어서는 이론의 발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대상인 국가로 되돌아와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해보자.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이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채로 남아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술적' 이론이, 의심할 나위없이, 맑스주의 국가 이론의 시작 자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작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즉 이 후 이론의 모든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실, 국가에 대한 서술적인 이론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관계하는 영역에서 관찰 가능한 무수한 사실들을 그 이론이 자신의 그 대상에 부여하는 정의와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억압적 국가장치 속에 존재하는 계급국가로서의 국가라는 정의는 (그 영역이 무엇인들간에) 다양한 억압질서들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1848년 6월과 파리 코뮌, 1905년 5월 베제르부르그의 피의 일요일, 레지스탕스, 샤론(Charonne) 등의 학살들에서부터 디드로의 *Républicaine*나 프랑코에 관한 가티(Gatti)의 극작품을 금지시킨 단순한(상대적으로 온건한) '검열'의 개입에 이르기까지——을 아주 명백한 방식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인민대중들에 대한 착취와 몰탈(재국주의 전쟁)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모든 형태들을 밝혀준다. 이 정의는, 맑스에 이어 레닌이 부르조아지 독재라고 불렀던 것이 (예컨대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태들 속에서) 드러나곤 하는, 이 미묘한 일상적 지배를 밝혀준다.

그러나 국가에 관한 기술적인 이론은, 그 자신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이론형성의 한 국면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의가 (억압적 국가장치로 이해되는 국가와 관련하여) 억압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해준다면, 이 '관계설정'(mise en rapport)은 아주 특수한 종류의 자명성, 즉 우리가 곧 "그래 맞아, 바로 그것이!"<sup>6)</sup>라고 말할 기회가 있을 자명성을 야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정의하에서 사실들의 축적이 (비록 그것이 그 예를 중대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정의, 즉 그 과학적 이론을 실제로 진전시켜주지는 않는다. 모든 기술적인 이론은 이처럼 이론의 (필수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술적 이론을 이론 그 자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즉 국가의 메커니즘과 그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치로서의 국가라는 고전적 정의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6) 더 멀리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참조.

## 맑스주의 국가 이론의 본질

우선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정확히 하자: 국가(그리고 그 존재와 장치)는 국가권력의 기능에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모든 정치적 계급투쟁은 국가를 중심으로, 즉 국가권력의 보유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 어떤 한 계급에 의한 또는 계급이나 계급 분파들의 동맹에 의한 국가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정확성은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 정치적 계급투쟁의 목표인 국가권력(국가권력의 유지 또는 획득)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장치를 구분하도록 강제한다.

우리는, 프랑스 19세기의 부르조아 혁명(1830, 1848) 또는 루메타(12월 2일, 1938년 5월) 또는 국가의 붕괴(1870년 제국의 몰락, 1940년 제3공화국의 몰락) 또는 뽀뽀-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상승(1890~95 프랑스에서) 등이 증명하듯이, 국가권력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건들하에서도 국가장치는 제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심지어 1917년 혁명과 같은 사회혁명 이후에도,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의 동맹에 의한 국가권력의 획득 아래에서) 국가장치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레닌은 이 사실을 충분히 반복해서 말했다.

국가권력과 국가장치의 이러한 구분은 (맑스의 『보루마르의 18일』과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이후) 명백히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맑스주의 국가 이론'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맑스주의의 고전가들이 항상 다음의 사실들을 단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1) 국가는 억압적 국가장치다. 2) 국가권력과 국가장치를 구분해야 한다. 3) 계급투쟁의 목표는 국가권력에, 그 결과 국가권력을 보유한 계급(또는 계급동맹이나 계급의 분파)에 의한, 그들의 계급 목적에 따른 국가장치의 활용에 관계된다. 그리고 4)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존하는 부르조아 국가장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최초의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프롤레타리아 국가장치로 그것을 대체해야 하고, 이후의 국면에서는 하나의 근본적 과정, 즉 국가 파피의 과정(국가권력과 모든 국가장치의 종언)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에 덧붙일 것을 제안할 것들이 이미 분명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완성된 이 이론은 (비록 그것이, 추가적인 이론적 심화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기능과 활동이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상이한 요소들을 이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채로 남아 있는 것 같다.

###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그러므로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에 덧붙여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오래 전부터 맑스주의 고전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섰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결정적 과정들을 이론적인 형태로 체계화시키지는 않았던 영역으로 신중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태도는 실상 무엇보다도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맑스주의의 고전가들은 사실, 즉 그 정치적 실천 속에서 국가를, '맑스주의 국가 이론'에서 주어진 장의(우리가 막 제안했듯이 보증된 이론에서조차)보다 더 복합적인 현실로 취급했다. 그들은 그들의 실천 속에서 이 복합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응하는 이론 속에 표현하지는 않았다.<sup>7)</sup>

우리는 이 상응하는 이론을 아주 도식적으로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7) 그림시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접하는 길을 따라 나아간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국가가 (억압적) 국가장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수많은 기관들(교회·학교·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림시는 자신의 직관들을 체계화시키지 못했으며, 그것들은 날카롭지만 부분적인 요약들에 머물고 있다(cf. 그림시: 선전, 에디츨 쏘시알, pp. 290, 291, 293, 295, 436. 우중서현, 에디츨 쏘시알, p. 313 참조).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체제를 제안한다.

국가 이론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국가장치간의 구별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억압적) 국가장치 결에 있지만, 그러나 그와 혼동되지는 않는 또 하나의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으로 부를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AIE)란 무엇인가?

그것은 (억압적) 국가장치와 혼동되지 않는다. 맑스주의 이론 속에서 국가장치(AE)는 정부·내각·군대·경찰·재판소·감옥 등 우리가 이후 억압적 국가장치라고 부르게 될 것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억압적이라는 말은, 문제의 국가장치가, 최소한 궁극적으로(왜냐하면 예컨대 행정적인 억압은 물리력이 아닌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에 의해 기능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서로 구별되는 특수화된 기구들의 형태 아래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수많은 현실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경험적인 목록을 제시할텐데 그것은 당연히, 세세하게 검토되고 증명되고 정정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내포하는 유보라는 조건하에, 우리는 당분간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열거하는 순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 종교 AIE (다양한 교회들의 체계)
- 교육 AIE (공적·사적인 다양한 '학교들'의 체계)
- 가족 AIE<sup>8)</sup>
- 법률 AIE<sup>9)</sup>
- 정치 AIE (다양한 정당들을 포함하는 정치적 체계)

8) 가족은 여타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는 명백하게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여한다. 가족은 생산양식에 따라 생산의 단위이며(이거나) 소비의 단위이다.

9) '법'은 (억압적) 국가장치에 속함과 동시에 AIE의 체계에도 속한다.



- 조합 AIE

- 커뮤니케이션 AIE (잡지 · 라디오 · 텔레비전 등)

- 문화 AIE (문학 · 예술 · 스포츠 등)

우리는 AIE들이 (억압적) 국가장치와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자의 차이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내 우리는 하나의 (억압적)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반면, 다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다수의 AIE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통일성은 죽각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단일화된 (억압적) 국가장치가 완전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반면, (의견상 흩어져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대부분은 반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교회들 · 정당들 · 조합들 · 가족들, 몇몇 학교, 대부분의 신문과 문화기업 동등은 모두 사적이다.

첫번째 관찰은 잠시 제쳐두도록 하자. 그러나 두번째 것에 관해서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 대부분이 공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사적인 기구일 뿐인 기구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명석한 맑스주의자로서 그람시는 이미 단 한마디로 이러한 이외제기를 예방한 바 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은 부르조아적 법 내부에서의 구별이며, 부르조아적 법이 그 '권력들'을 행사하는 (종속된) 영역들 속에서만 유효하다. 국가의 영역은 그로부터 벗어나는데, 왜냐하면 국가란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국가인 국가는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으며, 그것은 반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간의 모든 구별의 조건이다. 이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AIE를 구성하는 기구들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기능이다. 사적인 기구들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AIE든지 조금 더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넘어가자. AIE들 (억압적) 국가장치로부터 구별짓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이다. 억압적 국가장치가 '폭력에 의해 기능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

우리는 이 구별을 정정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모든 국가장치는 그것이 억압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폭력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지만,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과 (억압적) 국가장치의 활동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억압적) 국가장치의 경우, 주로 (물리적인 것을 포함한) 억압에 의해 기능하며 부차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순수히 억압적인 장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군대와 경찰 또한, 그들 자신의 응집력과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들이 외부에 제시하는 '가치' 안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역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경우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며, 부차적으로 억압에 의해 기능한다—공국적으로, 그러나 단지 궁극적으로, 이 억압이 매우 완화된다고 은폐되고 심지어 상징적이라 할지라도(순수히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와 교회는 승인 · 제명 · 선출 등의 적당된 방식을 통해 목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양들을 '훈련시킨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이며..... 문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역시 (검열의 예만 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등.

말할 필요도 없이, (억압적) 국가장치인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가에 따라 억압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중적(주로와 부차적으로) '기능'의 이 같은 결정은, (억압적) 국가장치의 작용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작용 사이에 명백하거나 암묵적인

매우 미묘한 결합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 준다. 일상적 생활은 우리에게 그 무수한 예를 제공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외견상 정당해 보이는 AIE 집단들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AIE들이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면, 그것들의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것은, AIE들을 기능시키는 이데올로기가 (그 다양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지배 이데올로기하에서 사실 항상 단일화되는 한에 있어서, 바로 그 기능 자체이다. 만일 원칙적으로 '지배계급'이 (공공연하게 또는 자주 계급이나 계급분파들의 동맹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보유하며, (억압적) 국가장치를 동맹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 모순들 자체를 가로질러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인 한에서, 동일한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속에서도 능동적인 것이라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 물론 (억압적) 국가장치를 속아서 법이나 포고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속아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매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그러나 그 차이가 깊은 동질성이라는 현실을 가리키는 못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떠한 계급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위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 하나의 예이자 증거로서, 국가권력을 탈취했던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미래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교육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변형하려 한 레닌의 엄격한 배려<sup>10)</sup>를 들고자 한다.

이 마지막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단 10) 1937년에 쓴 한 비장한 글 속에서 코롭스카야는 레닌의 절망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실패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순히 계급투쟁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자주 계급투쟁의 격렬한 형태를 떠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권력을 쥐고 있는 계급(또는 계급동맹)이 (억압적) 국가장치에서만큼 쉽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속에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이전의 지배계급이 오랫동안 그 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피착취계급의 저항이, 그 속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이용하거나 그 속에서 투쟁을 통해 전투적 지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속에 자신을 표현시킬 방도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1)</sup>

우리의 지적을 엄밀히 해보자.

우리가 제안한 체계가 근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한 지점에서 보다 명확히 하면서, 고전적인 맑스주의 국가 이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편으로 국가권력(그리고 [...]에 의한 그 보유)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장치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덧붙이자면, 국가장치는 두 개의 조직체——한편은

11) 여기서 AIE 속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계급투쟁의 문제를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문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첫번째 원리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서문에서 맑스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그러한 전복(사회혁명)을 고려하면,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 전복——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엄격한 방식으로 화술할 수 있다——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 투쟁을 의식하며 그것을 이끌어내야 하는 법칙·정치적·종교적·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태들은 항상 구별되어야 한다.” 계급투쟁은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들 속에서, 따라서 AIE들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들 속에서 표현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이러한 형태들을 훨씬 넘어서는다. 그리고 피착취계급의 투쟁이 또한 AIE들의 형태 속에서 시행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라는 무기를 권력을 쥔 계급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계급투쟁이 그러한 형태들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번째 원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계급투쟁은 AIE들을 훨씬 넘어선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은 이데올로기라는 다른 곳, 착취관계이며 계급관계들의 토대를 구성하는 하부구조, 생산관계를 속해 뿌려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 억압적 국가장치를 표현하는 기관체제와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나타내는 기관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지적을 요약하는, 상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역할의 범위는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들의 중요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달리 말하자면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기능'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상당 페이지 동안 의문인 채로 남아 있던 우리의 중심적인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법론적 언어(하부구조·상부구조) 속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대부분<sup>12)</sup> 법적-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술적인 언어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부분 국가장치들, 즉 한편으로 (억압적) 국가장치와 다른 한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속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국가장치들은 억압에 의해 그리고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 다만 (억압적) 국가장치가 주로 억압에 의해 기능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

12) 대부분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생산관계들은 우선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물질성에 의해 재생산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관계들은 이러한 동일한 과정들 속에 즉각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능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2. (억압적) 국가장치가 명령의 통일, 즉 국가권력을 보유한 지배 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의해 시행되는 계급투쟁의 정치의 통일 아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집중되는 조직화된 전체를 구성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다수이며 서로 상이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제한되거나 과도한 형태 아래) 자본가계급의 투쟁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간의 충격의 효과들을 표현하는 모순들에 객관적인 장을 제공할 수 있다.

3. (억압적) 국가장치의 통일이 집권계급의 계급투쟁의 정치를 수행하는 집권계급의 대표자들의 지도 아래 집중되고 단일화되는 조직화에 의해 보장된다면,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통일은 아주 자주 모순적인 형태들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노동의 분할'에 따른 다음과 같은 방식의 생산관계들의 재생산<sup>13)</sup>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억압적인 국가장치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억압장치인 한 (물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힘에 의해 최종심에서 확립된 계급인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의 정치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장치는 대부분 그 자신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자본주의 국가에는 정치적 왕조들과 군사적인 왕조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장치는 억압에 의해(가장 야만적인 물리적 힘에서부터 단순한 명령과 행정적 금지들,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인 검열 등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작용을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보장한다.

억압적 국가장치라는 '방패' 아래, 생산관계들의 재생산 자체를 대부분 보장하는 것은 사실 이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다.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역할을

13)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기여하는 재생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을 수행하는 것은 이곳에서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매개에 의해,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간의, 그리고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간의 (때로는 뼈저거리는) '조화'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이라는 단일한 (왜냐하면 공통되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에 이르게 된다.

사실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을 열거한 바 있다: 교육장치 · 종교장치 · 정치장치 · 조합장치 · 커뮤니케이션장치 · '문화'장치 등.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건제라 불리는) '농노제적' 생산양식의 사회구성체들 속에서는, (절대왕정 이후만이 아니라 알려진 최초의 고대국가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단일한 억압적 국가장치가 존재한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수는 지금보다 적었으며, 그 각각의 유형도 지금과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중세에서 교회(종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당시, 오늘날 차별화된 여러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귀속되어 있으며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과거와 비교하여 새로워진 수많은 기능들, 특히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교회 결에는 가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 속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외양과 달리 교회와 가족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아니었다. 정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또한 존재했다(삼부회, 의회, 현대 정치정당의 선조인 다양한 정치적 분파와 연맹, 자유로운 교문들과 이후 도시들의 정치체계). 또한, 단일 우리가 위엄을 무릎쓰고 매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강력한 '전(前)-노동조합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도 존재했다(장인과 은행가들의 강력한 동업조합, 직인들의 조합 등). 출판과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에는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가 이후 점점 그

로부터 독립적이 된 연극과 마찬가지로, 이론의 여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 살펴본 전(前)자본주의적 역사의 시기에 하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존재했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자신에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집중시켰다. 종교개혁이라는 최초의 동요 이후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모든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반교권 투쟁과 반종교 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지배적 위치에 따른 것일 뿐이다.

포랑스 대혁명의 목표와 결과는, 단지 국가권력을 봉건귀족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상인 부르주아에게 넘기는 것, 즉 부분적으로 넓은 억압적 국가장치를 파괴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예컨대 국민병)뿐만 아니라 또한 최고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민간인에 의한 성직자 임명이 실시되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몰수가 수행되고 종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대신하여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서는 정교협약과 왕정복고, 그리고 이전에 교회가 수행한 기능들 위에(특히 학교를 통해)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수립하기 위해 19세기 내내 벌어졌던 토지귀족과 산업부르주아지간의 기나긴 계급투쟁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부르주아지는 교회에 대항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교회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박탈하기 위해,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 헤게모니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또한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대혁명의 초기 몇 년 동안 사용되었고 격렬한 오랜 투쟁 끝에 1848년 몇 달 동안 복귀되었으며, 제2제정의 몰락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의회민주주의에 의지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태세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전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국가정치에 대항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격렬한 계급투쟁의 결과 성숙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 속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놓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교육 이데올로기적 정치**이다.

이 태세는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즉 부르조아지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착취하는 계급들에 부여하려는 이데올로기적 표현 속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학교가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보통선거와 정당들의 투쟁을 갖추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역사는 최근에서조차, 부르조아지가 의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프랑스에 한해 말하더라도, 제1 또는 제2제정, 임헌군주제(루이 18세, 샤를로 10세), 의회군주제(루이-펠릭), 대통령 민주제(드골) 등——에 매우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사태는 한층 더 명백하다. 그곳에서 혁명은 부르조아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성공했다’ 왜냐하면 부르조아지가 부분적으로는 하층 귀족의 어리석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로서는 엄청난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농민적이고 하층민적인 ‘혁명적 날들’을 통한 권력장악을 받아들이야 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의 부르조아지는 귀족과 ‘타협’할 줄 알았고 아주 오랫동안 국가권력의 보유와 국가장치의 사용을 귀족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지배계급들 중 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 독일에서 사태는 더욱 뚜렷하다.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파’하고 나치즘에 자신을 내맡기기 이전에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가 역사 속으로 요란스럽게 진입했던 것은, 제국주의적 용커들(그 상징으로서 비스마르크)과 군대, 경찰이 그에

게 방패 역할과 개인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 아래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경(前景)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뒤로, 부르조아지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따라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설치한 것은 교육장치이며 그것이, 이전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교회를 그 기능면에서 대체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도 있겠다. 학교-가족이라는 쌍이 교회-가족이라는 쌍을 대체했다.

왜 교육장치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당분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 모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그것이 무엇이건간에) ‘생산 관계들, 즉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들의 재생산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결과에 기여한다.

2. 그들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동일한 결과에 기여한다. 정치적인 장치는 개인들을 정치적인 국가 이데올로기, 즉 ‘간접적인’(의회적인) 또는 ‘직접적인’(인민투표의 또는 파시스트적인)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커뮤니케이션 장치는 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일정한 양의 민족주의·소비니즘(국수주의)·자유주의·도덕주의를 주입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문화장치 또한 마찬가지다(소비니즘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종교장치는 신포나 틴생·결혼·죽음과 관계된 의식들 속에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 정도로 형제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인간은 터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가족장치는…… 그러나 더 나아가지 말자.

3. 이러한 협주는, 경우에 따라 모순들(이전의 지배계급들의 잔존이라는 모순들, 피터와 그들의 조직화라는 모순들)에 의해 어지럽

원지는, 단일한 악보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것은 현재 지배적인 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악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음악 속에, 기독교 이전에는 그리스의 기적,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도시인 로마의 영광을 만들었던 위대한 고대인들의 '인간주의'의 대주제들과, 그리고 민족주의·도덕주의 그리고 경제주의 등 특수하거나 일반적인 '이해관계'의 주제들을 통합시킨다.

4. 그러나 이 합주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명백히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비록 사람들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음악은 그토록 고요하다! 그것은 학교다. 학교는 모든 사회계급들의 취학연령 자녀들을 수용하며, 이후 가족 국가장치와 학교 국가장치 사이에 꼭 끼인 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여러 해 동안 새롭거나 낡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인 '노-하우'들(불어·선수·자연사·과학·문학 등), 또는 단순히 순수상태의 지배 이데올로기(윤리·국민교육·철학 등)를 주입하여 가르친다. 16세를 즈음하여 아이들의 거대한 무리 하나가 '생산 속으로' 어디론가 떨어진다. 그들은 노동자들이나 소농들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의 또 다른 부분은 그러저럭 조금 더 전진하여 길에 떨어지고 하급 및 중급 기술자·사무원·하급 및 중급 관리, 즉 온갖 종류의 뾰머-부르조아지의 직위를 충당하게 된다. 마지막 부류는 정상에 도착해서 반(半)휴업 인텔리겐차로 떨어지기도 하고 '절단 노동자의 지식인' 이외에, 착취의 대리자들(자본가·경영자, 억압의 대리자들(군인·경찰·정치가·행정관리 등)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문가들(그 대부분은 확신하는 '속인'——문외한——인 온갖 종류의 사제들) 등을 충당하기도 한다.

길에 떨어진 각각의 집단들은 계급사회 속에서 그들이 채워넣어 아 할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이데올로기들을 실제로 제공받는다: 즉 피착취자의 역할(고도로 '발달된' '도덕적이고' '국민적이며' '민중적인' 비정치적인 '전문적 의식'); 착취의 대리자 역할(노동자들에게 명령하고 말하는 법, 즉 '인간관계'를 알기), 억압의 대리자 역할

(명령하고, '군말 없이' 복종하는 법 알기,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수사학이라는 데마고기를 다루는 법 알기), 이데올로기 전문가 역할(도덕·미덕·'초월'·자연·세계에서 프랑스의 역할 등을 강조하기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존경심, 즉 멸시와 혐박, 데마고기를 가지고 의식들을 취급하는 법 알기) 등.

물론, 이러한 대비된 많은 미덕들(한편으로 겸손·체념·복종, 다른 한편으로 냉소주의·멸시·오만·확신·자만심 나아가 야심·교활함 등)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군대에서, 문학작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심지어 경기장에서도 또한 가르쳐진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어린이들 전체를 일주일의 5, 6일 그리고 매일 8시간씩, 그 여러 해 동안 의무적인(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지만 무료인) 청중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생산관계들, 즉 피착취의 착취자에 대한 그리고 착취자의 피착취자들에 대한 관계들이 대부분 재생산되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집단적인 주입 속에 둘러싸인 몇몇 노-하우들을 견습함으로써다. 자본주의체제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인 결과물 산출하는 메커니즘은 당연하게도, 보편적으로 군림하는 학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고 숨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적인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형태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를 중립적이고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왜냐하면……비종교적이니까) 장소로 포장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인데, 그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부모들(그들 또한 자유롭다. 즉 아이들의 소유자다)에 의해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의 '의식'과 '자유'를 존중하는 선생님들이 그들의 고유한 사례와 지식, 문학과 그들의 '자유롭게 만드는' 미덕들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와 도덕성과 성인의 책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역사와 지식 속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무기들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체계·관례를 쪽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에

계 양해를 구하는 바다. 그들은 영웅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소수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대부분)이 (그들보다 훨씬 크고 그들을 짓누르는) 체계가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지조차 않으며 더욱 나쁜게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재능을 바쳐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유명한 새로운 방법!). 그들은 너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세기 전 우리의 선조들에게 교회가 '자연스럽고' 불가결하며 관대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에게 학교를 또한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며 유용하고 심지어 고마운 것으로 만드는 학교 이데올로기의 표현들을 유지하고 조장하는 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다.

사실 교회는, 오늘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역할에 있어 학교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전에 교회가 가족과 쌍을 이루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가 가족과 쌍을 이룬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만일 학교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세계적인 계급투쟁에 의해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생산양식의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 간주된다면, (가족체계를 뒤흔드는 위기—이미 『공산당선언』에서 예고되었던—와 때때로 결합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많은 나라의 학교체계를 뒤흔드는 전례 없이 깊은 위기가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ADE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한 하나의 현실, 즉 이데올로기를 원용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데올로기라는 이 표현은 카바니스(Cabanis), 데스튀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와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그들은 사고들의 (발생론적) 이론을 이데올로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50년 후에 맑스가 그 용어를 다시 취할 때, 그는 (청년기 저작에서부터) 거기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때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사회정당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고들과 표상들의 체계다. 『라인신문』의 기사를 쓸 때부터 맑스에 의해 수행된 이론적-정치적 투쟁은 빠르게 그를 이 현실과 대면시켰으며, 그로 하여금 그의 최초의 직관들을 심화시키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역설에 부딪히게 된다. 모든 것이 맑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론을 정식화하도록 이끈 것 같다. 사실 『44년 초고』에 의하여, 『독일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명시적인 이론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맑스주의적이지 않다(우리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이다). 『자본론』으로 말하자면, 비록 그것이 이데올로기들(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서는 속류경제학자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론을 위한 많은 지적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책은, 이데올로기 일반의 이론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이 이론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는 감히 이 이론에 관한 최초의 매우 도식적인 스케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물론 내가 제시하는 테제들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심화된 연구와 분석들을 통해서만 지지되고 증명될 수 있다. 즉, 확증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그 행태가 어떠한(종교적·도덕적·법적·정치적) 항상 계급입장을 표현하는 특수한 이데올로기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일반의 이론에 관한 계획을 근거짓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당화시켜주는 원리의 이유를 해명하기 위한 말이다.

방금 지적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들의 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때 이데올로기들의 이론은 최종심에서 사회구성체들의 역사에, 따라서 사회구성체들 속에 결합된

생신양식들의 역사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계급투쟁들의 역사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들 일반의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들(바로 위에서 지적된 두 가지—국부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관점에 의해 규정되는)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의 결정은 최종성에서 명백히, 단순한 이데올로기들의 바깥에—그것과 관련되면서도—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가 이데올로기 일반의 이론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이론이, 실제로 이데올로기들의 이론들을 근저짓는 요소들 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내가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로 전술할 외관상 역설적인 명제를 전제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식은 『독일 이데올로기』의 구절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맑스는 그것을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전술한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도덕(함축된 의미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여타 형태들 또한)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갖지 않는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 정식은 완전히 실증주의적 맥락 속에 나타난다. 거기에서 이데올로기는 순수한 환상으로, 순수한 꿈으로, 다시 말하면 무(無 *meant*)로 이해된다. 그것의 모든 현실은 이데올로기 바깥에 있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는 그 지위가 프로이트에 앞선 작가들에게서 나타난 꿈의 이론적 지위와 매우 유사한 상상적인 구성물로 사고된다. 이들 작가들에 있어서 꿈은, 자의적이고 게다가 때때로 '전도된' 순서와 구성 속에서, 요컨대 '무질서 속에서' 표현된 '낮의 끼꺼기들'의 순전히 상상적인, 즉 아무것도 아닌(nul) 결핵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눈을 감고서, 충만하고 긍정적인 유일한 현실 즉 낮의 현실의 끼꺼기들을 자의적으로 '꿈어맞춘'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상이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철학과 이데올로기(왜냐하면 거기에서 철학은 더할 나위없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의 지위는 정확히 이리했다.

그때 맑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들은 상상적인 '꿈어맞춘' 다시 말

해, 충만하고 긍정적인 유일한 현실, 즉 그들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생산하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개인들의 구체적 역사라는 현실의 '낮의 끼꺼기'들로 구성된, 공허하고 헛된, 순수한 꿈이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들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바깥에, 즉 현존하는 유일한 역사, 구체적 개인들의 역사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데에는 그러므로 순수하게 부정적인 테제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1) 이데올로기는 순수한 꿈인 한 아무것도 아니다(그것은 노동의 분할의 소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또한 부정적인 결정이다).

2)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그 반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역사의 전도된, 공허하고 생기 없는 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내가 『독일 이데올로기』의 용어들("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을 그대로 다시 취하면서 옹호하고자 하는 데에는 『독일 이데올로기』의 실증주의적-역사주의적 테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데올로기들은 그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비록 그것이 최종성에서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고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의미(이데올로기의 역사는 바깥에 있다)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일반은 역사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긍정적이다—만일 이데올로기의 특성이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비역사적인 현실로, 즉 (『공산당선언』이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 즉 계급사회들의 역사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역



사 전체라고 부르는 것 속에 그 구조와 기능들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전(全)역사적인 현실로 만드는 구조와 기능들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하나의 이론적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는 프로이트 속에서 꿈의 예를 다시 취하면서, 나는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우리의 명제가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영원하다: 즉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명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져야 한다(전혀 자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이론적으로 필수적인 방식으로—왜냐하면 이 두 명제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자 한다.

만일 영원하다는 것이, 모든 (시간적) 역사에 대해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 어디서나 나타나고 역사를 관통한다는 것, 따라서 그 형태에 있어 변함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프로이트의 표현을 한마디 한마디 다시 취하면서 (무의식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다고 쓰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내게는 이러한 접근이 무의식의 영원성은 이데올로기 일반의 영원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프로이트가 무의식 일반의 이론을 제출했던 의미에서 (최소한 가설적으로) 이데올로기 일반의 이론을 제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는다.

이 표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에 이데올로기에 관해 말해졌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막 그것은 역사를 갖지 않는다, 또는 (미친가지지민) 영원하다, 즉 그 부동의 형태 아래 모든 역사(=사회계급들을 포함하는 사회구성체들의 역사) 속에서 어디서나 나타난다고 말했던 이데올로기 일반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그 자체(ideologie tout cour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합의하기를 원한다. 나는 감정적으로 사실상 '계급사회'들과 그 역사에 국한하고자 한다.

##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실제 존재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다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중심적 테제에 접근하기 위해 나는 우선, 하나는 부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두 가지 테제를 제출할 것이다. 그 첫번째 테제는 이데올로기의 상상적인 형태이며 '표상되는' 대상과 관련되며, 두번째 테제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에 관련된다.

테제 I :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실제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 도덕적 이데올로기, 법적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그것들이 '세계관'(conceptions du monde)이라고 말한다. 물론, 만일 이들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를 진실로서(예를 들어 신·의무·정의 등을 '믿는다'는 식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민속학자가 '원시사회'의 신화들을 관찰하듯이 그것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비판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인 이 '세계관'들이 상당 부분 상상적이며, 즉 '현실에 조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현실에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것들이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이 현실을 암시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것들의 상상적 표상 아래서 이 세계의 현실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데올로기=환상/임시)을 인정한다.

다양한 유형의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은 18세기에 통용되었던 기계론적 유형의 해석(신은 실제 왕의 상상적 표상이다)과 최초의 교부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포이에르바흐와 그로부터 유래한 신학-철학 학파, 예컨대 신학자 바르프 등에 의해 되풀이된 '성서해석적' 해석이 있다(예컨대, 포이에르바흐에게 있어서 신은 실제 '인간'의 본질이다). 요점은, 이데올로기의 상상적 전

위(그리고 전도)를 해석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안에  
서 "사람들은 사상적 형태로 그들의 실제 존재조건들을 포상한다"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작은 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남  
겨놓는다. 그들의 실제 존재 조건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  
은 그들 존재의 실제 조건들을 이처럼 상상적으로 전위시킬 '필요  
가 있는 걸까'?

첫번째 대답(18세기의 그것)은 단순한 해결을 제시한다. 즉 그것  
은 사제들과 군주들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복종한다고 믿으면서 실상은 (아주 빈번하게 형장 속에서 결  
탁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론가들'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사제들이  
군주들을 섬기거나 또는 역의 관계가 되는) 사제들과 군주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쁜 거짓말들을 '지어'냈다. 그러므로 실제  
존재조건들의 사상적 전위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면, 세계에  
대한 잘못된 포상 위에서 '민중'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확  
립하려는 소수의 파렴치한 인간들의 존재다. 사제들과 군주들은 민  
중의 상상력을 지배함으로써 그 정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이러한 잘  
못된 포상을 고안해낸 것이다.

두번째 대답은 (포이에르바하의 그것으로 맑스의 청년기 저작 속  
에서 한마디 한마디 되풀이된다) 보다 '심오하며', 즉 마찬가지로 틀  
린 것이다. 그것 또한 전위, 그리고 인간들의 실제 존재조건에 대한  
상상적 왜곡, 오권대 소외의 원인을 인간들의 존재조건에 대한 포상의  
환상에서 찾고 발견한다. 그 원인은 더 이상 사제도 아니며 군주도  
아니고, 그들의 고유한 능동적 상상력과 외생자들의 수동적 상상력  
도 아니다. 그 원인은 인간들 자신의 존재조건을 지배하고 있는 물  
질적 소외이다. 이와 같이 맑스는 『유대인 문제』와 다른 곳에서, 인  
간들은 그들의 존재조건에 대한 소외된(=상상적인) 포상을 얻는다  
는 것, 왜냐하면 그 존재조건 자체가 소외시키는 것이기 때문(『44  
년 수교』에서는: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소외된 사회의 본질, 즉 '소

외된 노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이라는 포이에르바하의 생각  
을 옹호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해석들은, 그것들이 전제하고 의존하는 테제,  
즉 이데올로기에서 세계에 대한 상상적 포상 속에 반영되는 것은  
인간들의 존재조건들, 따라서 실제 세계라는 테제를 글자 그대로  
체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내가 이미 제시한 바 있었던 테제로 되돌아  
가려 한다: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람들이' '포상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존재조건이나 실제 세계가 아니다.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에  
게 포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존재조건에 대한 그들의 관계다. 실  
제 세계에 대한 모든 이데올로기적, 따라서 상상적 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관계다. 실제 세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포상의  
상상적 왜곡을 설명할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관계  
속이다. 아니 차라리, 원인이라는 말을 제쳐두기 위해 모든 이데올  
로기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만일 사람이 그 진실 속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상적 왜곡의 기반은 바로 이 관계의 상상적 본성  
이라는 테제를 제기해야 한다.

맑스주의적 언어로 말하자면, 만일 생산·착취·억압·이데올로  
기화 그리고 과학적 실천 등의 대리자의 적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실제 존재조건의 포상이 최종심에서 생산관계들과 그  
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상상적인 그 왜곡 속에서, 생산관계  
들(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관계들)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  
라, 무엇보다도 생산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에 대한 개인들  
의 (상상적) 관계를 포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  
기 속에 포상되는 것은, 개인들의 존재를 지배하는 실제 관계들의  
체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관계들에 대한 개인들의 상  
상적 관계이다.

만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데올로기 속에서 실제 관계들이 상상

적으로 왜곡되는 '원인'이라는 문제는 사라지며, 그것은 개인들의 정단적·개인적 삶과 그들의 실제 조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관계들에 관해, 개인들에게 주어진 표상은 왜 필연적으로 상상적인가? 그리고 이 상상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로 대체된다.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만들어내는 개인들의 그룹(사회들 또는 군주들)이라는 '외벌'(coique)<sup>14</sup>에 의한 해결 및 실제 세계의 소외된 성격에 의한 해결을 배제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명이 계속됨에 따라 왜 그러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당분간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 테제 II :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존재를 갖는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고들', '표상들이' 상상적·이상적·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미 이 테제를 약간 언급했다. 우리는 또한 '사고들'의 이상적, 관념적, 정신적 존재는 오로지 '사고'(idee)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덧붙이자면) 과학의 출현 이후부터 이 개념을 '일반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 즉 과학의 실천가들이 그들의 자연발생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올바르게 혹은 틀린 '사고들'로 표상했던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기조차 했다. 물론, 이 단언적인 테제로 제시되어 있는 테제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말하자면 유물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단순히 호의적인 선입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테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고들'과 '표상들이'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라는 이 가

14) 나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매우 원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파벌'의 행동에 의한 정치적 편향(우익 혹은 좌익기회주의)이라는 설명은 불행하게도 널리 유통되는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적인 테제는 사실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본성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는 차라리 그것은, 어느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소 전지한 모든 분석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관찰자에 개략적인 즉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있어 단지 유용하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과 그들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각각 하나의 이데올로기(지배 이데올로기에의 복종에 의해 보장되는, 종교적·도덕적·법적·정치적·미학적 등 다양한 국부적 이데올로기들의 통일)의 실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테제로 되돌아간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정치 속에, 그리고 그 실천 혹은 실천들 속에 존재한다. 이 존재는 물질적이다. 물론 장치와 그 실천들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존재는 도로나 총의 물질적 존재와 같은 양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비오-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 취급될지라도(맑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매우 깊은 존경심을 보냈음에 주의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물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 또는 차라리, 그것은 최종심에서 '물리적' 물질에 뿌리박은 다양한 양태들로 존재한다.

이제 곧바로 돌아가서, 이데올로기 속에, 즉 세계에 대한 일정한 (종교적·도덕적 등) 표상—그 상상적 왜곡은 개인들의 존재조건, 즉 최종심에서 생산관계와 계급관계에 대한 그들의 상상적 관계에 달려 있다(이데올로기=실제 관계에 대한 상상적 관계)—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상상적 관계는 그 자신 물질적 존재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다.

한 개인은 신이나 의무·정의 등을 믿는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즉 이데올로기를 원래 정신적 존재를 부여받은 사고들로 환원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표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예의 개인, 그의 믿음에 대한 사고들을

포함하는 의식의 주체로서의 그의 사고들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즉 이처럼 설정된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적 장치(자신이 믿는 사고들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자유롭게 인식하는 의식을 부여받은 주체)에 의하여, 예의 주체의 (물질적) 행동은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문제의 개인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러저러한 실천 방식을 채택하며, 나아가 (그가 주체로서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고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의 실천인) 어떤 일정한 실천들에 참여한다. 그가 신을 믿는다면, 그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속죄하며 (옛날에 그것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이었다) 또한 당연히 참회한다. 동등, 그가 의무를 믿는다면, 그는 '못습에 따라' 관습적 실천들 속에 기입된 상응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다. 만일 그가 정의를 믿는다면, 그는 군말없이 법의 규칙들에 복종할 것이며, 그것들이 침해될 때는 심지어 항의할 수도 있고, 탄원서에 서명하고 시위에 참가할 수도 있다 등등.

이 모든 도식들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적 포상은 그 자체 다음을 인식하도록 강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의식을 부여받고, 의식이 그에게 불어넣고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고들'을 믿는, 모든 '주체'는 '그의 사고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의 물질적 실천, 행위를 속에 자유롭게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사고들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 그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다.

사실상, 만일 그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항상 동일한 관념론적인 도식에 따라서)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다른 사고들에 따라, '직각' 없는(일부러 나쁜 사람은 없다) 또는 냉소적이거나 타락한 인간으로서 행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그 상상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체의 '사고들'이 그의 행위들 속에 존재하고 또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수행한 행위들(심지어 타락한)에 조응하는 다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실천들 속에 삽입된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천들이,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물질적 존재 안에 그것들이 기입되어 있는 관습들—그것이 장치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의 하나의 작은 미사, 하나의 장례식, 스포츠 세계에서의 하나의 작은 시험, 학교에서의 수업 하루, 정치적 당의 하나의 집회나 화합 등.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적 도식의 순서를 전복하게 해준 훌륭한 정식화를 파스칼의 방어적인 '변증법'에 빚지고 있다. 파스칼은 대략 이같이 말한다: "무릎을 꿇어라. 기도의 말을 읊조려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평화가 아니라 분열, 게다가 거의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왜냐하면 세상에 스캔들을 가져오는 자에게 불행 있으라!), 즉 스캔들 자체를 수반하면서, 사물들의 순서를 (스캔들을 일으키며) 전복시켰다. 그로 하여금 장세니스트적인 도전을 통해, 직접 현실을 지시하는 언어를 옹호하게 만든 스캔들에 복이 있나니.

우리는 파스칼을 그의 시대의 종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속에서 그가 벌인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논쟁 속에 남겨두고, 기능하다면(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별로 탐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맑스주의적인 언어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체(이러저러한 개인)만을 고려하자면, 그의 믿음에 대한 사고들의 존재는 물질적이다: 그의 사고들이, 이 사고들이 유래하는 물질적인 이데올로기 장치에 의해 그 자신 규정되는

물질적 관습들에 의해 제한되는 물질적 실천들 속에 삽입된 물질적 행동이라는 면에서 그러하다. 당연히 우리의 명제 속에 가입된 세계의 '물질적인'이란 형용사는 상이한 양태들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미사에 가기 위한 이동, 무물끓기, 믿음이나 나의 죄를 표현하는 제스처, 문구, 기도, 회개, 고해성사, 시선, 악수, 내적인 언어적 담화(의식)나 외적인 언어적 담화 행동의 물질성, 즉 유일하기도 동일하지도 않은 물질성. 물질성의 양태들의 차이에 대한 이론은 제쳐둘 것이다.

그레도 남는 문제는 전복된 사물들의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전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표현 속에서 몇 가지 개념은 완전히, 간단하게 사라져버렸고 반면 다른 개념들이 그것들을 대체하며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라진 것: 사고들이라는 용어.

대체하는 것: 주체·의식·믿음·행위라는 용어들.

등장하는 것: 실천·관습·이데올로기 장치 등의 용어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전복(하나의 정부 혹은 유리잔이 전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이 아니라 (매각적인 유형이 아닌) 개념이다. 그 개념은 아주 이상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사고들의 존재가, 최종심에서 이데올로기 장치에 의해 규정되는 관습들에 의해 제한되는 실천들의 행위 속에 가입되는 바로 그 정도로,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를 부여받는) 그러한 사고들은 사라졌다. 그러므로 주체가 다음의 체계(실제적인 결정의 순서로 서술됨)에 의해 작용받은 만큼 움직인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인 이데올로기 장치 속에 존재하며, 이데올로기 장치는 물질적 관습에 의해 제한되는 물질적 실천들을 규정한다: 물질적 실천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의 물질적 행위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동일한 표현은 우리가 다음의 개념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의식·믿음·행위 등. 이들 연속으로부터 우리는 즉각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우리의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용어인 주체라는 개념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즉각 두 가지 결합된 테제를 제기할 것이다:

1) 이데올로기에 의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아래 있지 않은 실천이란 없다.

2) 주체에 의하지 않고 주체들을 위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란 없다.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의 중심적인 테제에 이를 수 있다.

###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 테제는 단지 우리의 마지막 명제 "주체에 의하지 않고 주체들을 위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는 없다"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주체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사명은 주체에 의해서만, 즉 주체라는 범주와 그 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주체라는 범주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출현, 무엇보다도 범 이데올로기<sup>15)</sup>의 출현을 통해서만 이 명칭(주체) 아래 나타난다고 해도 주체라는 범주(다른 명칭, 예컨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영혼·신 등의 명칭 아래 기능할 수 있다)는, 그 이데올로기 명칭(국부적인 또는 계급적인)이 무엇이었건에 그리고 그 역사적 시기가 언제이건에—왜냐하면 이데올로기에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모든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범주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범주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즉각 우리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개인들을 주체로 '구성하는' 기능—그것이 이데올로기를 규정

15) 범 이데올로기는 '인간은 본래부터 주체이다'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을 지어내기 위해 '법적 주체'(sujet de droit)라는 법적 범주를 차용한다.

한다——을 가지는 한에서만, 주체의 범주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고 덧붙인다. 모든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중의 구성작용 속에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존재하는 물질적 형태를 속에서의 기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쓰는 사람 또한 주체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주체라는 사실(동어반복적인 명제), 즉 독자처럼 작가도, 우리가 “인간은 본래 이데올로기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자연히’ 이데올로기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학적임을 주장하는 담론의 글들을 쓰는 한, ‘그의’ 과학적 담론에 있어 ‘주체로서의 작가’는 완전히 부재한다는 것(왜냐하면 모든 과학적 담론은 정의상 주체 없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이데올로기에서가 아니라면 ‘과학의 주체’란 없다)은 다른 문제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당분간 제쳐둘 것이다.

성 바울이 감탄할 만큼 적절하게 말했듯이 우리가 ‘존재·운동·삶’을 가지는 것은 ‘로고스’ 속에서, 즉 이데올로기 속에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있어서나 나에게 있어서나 주체의 범주는 본래적인 ‘자명성’이다(자명성들은 항상 본래적이다). 당신과 내가 (자유로운·도덕적인 동의) 주체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사물을 지칭하’거나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동의 모든 자명성들(거기에는 언어의 ‘투명성’이라는 자명성이 포함된다)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내가 주체들이라는——그리고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이러한 자명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이며 기초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다.<sup>16)</sup> 자명성들을 자명성들——우리가 ‘인지’하 16) 언어학자들과, 다양한 목적에서 언어학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주 모든 담화들——거기에는 과학적인 담화들 자체도 포함된다——속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들의 작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관련된 곤란을 예외하게 된다.

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높여, 또는 ‘의식의 침묵’ 속에서) “그건 명백해! 바로 그거야! 분명해!”라고 외치며 피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하는——로 강요하는 것(전혀 강요하지 않게, 왜냐하면 그것은 자명성들이기 때문이다)은 실상 이데올로기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 반응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서 가지는 두 가지 기능 중의 하나인 이데올로기적 ‘인지’(reconnaissance)의 기능이 수행된다(그 이면은 물인식(méconnaissance)의 기능이다).

이주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서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닫힌 문 너머로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나야!”라고 대답한다(왜냐하면 그런 자명하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녀라는 것’ 또는 ‘그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우리는 문을 열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녀라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안녕, 친구!”라고 말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것은 최소한 프랑스에서는 일상적 삶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인지의 물질적·관습적 실천이다. 다른 곳에는 다른 관습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았다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알아보았음을 알아보았다는) 표시를 그에게 하게 된다.

이러한 예비적인 지적과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는 단지 당신과 내가 **함상-이미** 주체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혼동될 수 없고 (당연히) 바뀔 수 없는 주체들임을 보증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지의 관습들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글쓰기와 당신이 현재 물두하고 있는 독서는, 그것들 또한 이런 관점에

17) 주목하자. 이 이중의 현재는 이데올로기가 ‘명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현재’는 그 크기가 문제되지 않는 시간적 간격(나는 이 글들을 1969년 4월 6일에 쓰고 있으며, 당신은 그 것들을 언젠가——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읽을 것이다)에 의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이데올로기적 인지의 관습들——거기에는 나의 성찰들의 '지리성'이나 '오투'가 당시에게 부과되는 자명성까지 포함된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일상적 삶의 실천적 관습들(약수,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내가 비록 그것을 알진 못하지만 당신을 유일한 주체로 인식시키는 고유한 이름이 있음을 인다는 사실 등) 속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이러한 인지는 우리에게 단지 이데올로기적 인지라는 우리의 끊임없는(영원한) 실천에 대한 '의식'——그 의식, 즉 그 인지——을 부여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지식(consaisance)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한가운데서 말하면서) 감히 이데올로기에 관한 과학적인 (주체 없는) 담론을 시작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절연하고자 하는 담론을 묘사하려 한다면, 바로 이러한 지식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주체의 범주가 (구체적 주체들을 주체로 구성함으로써만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특이한 설명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며, 반대로 그것은 사고될 수 있고 사고되어 지식을 이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추상적이다.

나는 최초의 정식으로, (주체라는 범주의 기능을 통해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들을 구체적 주체들로서 호명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 명제는 우리가 잠시 동안 한편으로 구체적 개인들과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주체들을 구별함을 함축한다. 비록 이 수준에서 구체적 개인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구체적 주체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개인들 가운데서 주체들을 '경첩'하거나(그것은 모든 개인들을 경첩한다), 우리가 호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매우 정확한 작용을 통해 개인들을 주체들로 '변형'시키

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작용'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흔한 경첩의 (또는 다른) 일상적인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포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sup>18)</sup>

만일 우리가 상정한 이론적 장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호명된 개인은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회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왜?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그'(다른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험은 호명이라는 실천적인 것기통신이 그와 같다는 것, 그리고 호명은 실제로 그의 대상을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로 부르거나 호자를 불어서 호명된 자는 항상 호명된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현상으로서, 비난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불구하고, 단지 '죄의식'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의 작은 이론적 연극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물들을 연속된 형태로(하나는 앞에, 다른 것은 뒤에) 즉 시간적 연속이라는 형태로 제시해야 했다. 산책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다고 하자. 어디선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동태에서) 호명이 들려온다. "헤이 거기 당신!" 한 개인(90% 정도는 항상 무표로 했던 사람이다)이 돌아선다: 자신이 문제된다는 것을 믿으면서—의심하면서—알면서, 그러므로 그 호명에 의해 겨냥된 사람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사건들은 어떠한 연속 없이 발생한다. 이데올로기의 존재와 개인의 주체로서 호명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다.

덧붙이자면, 이처럼 이데올로기 바깥에서 (정확히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일은 실제로 이데올로기 속에서 벌어진다. 실제

18) 정확한 관습에 종속된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호명은, '용의자들을 호명하는 것이 문예인 경첩관의 '호명'의 실천에서 완전히 '공간적인' 형태를 취한다.

로 이데올로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러므로 그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 이데올로기의 효과들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이데올로기에 의해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결코 "나는 이데올로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데올로기 속에 있다(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나는 이데올로기 속에 있었다(일반적인 경우)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밖에, 즉 과학적 지식 속에 있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속에 있음에 대한 고발이 오직 타인들에게만 가치 있을 뿐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전정으로 스피노자주의자나 맑스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점에서 양자는 정확히 동일한 입장이다)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데올로기가 바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데올로기 자체에 있어서)이며,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바깥에마도 존재한다는 것(과학과 현실에 있어서)이다.

그것을 스피노자는 맑스보다 200년 전에 정확히 설명한 바 있으며, 맑스는 그것을 실천하였지만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점은 제쳐두자. 비록 그것이 단지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다고——왜냐하면 예컨대 맑스-레닌주의적 계급투쟁의 실천에서 황금법칙인 비판과 자기 비판의 모든 이론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하더라도.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 이데올로기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기호를 포함한 바 있는 시간성이라는 형식을 제거해야 하며, 이데올로기는 항상-이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했다고 말해야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들은 항상-이미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로 호명되었다. 이것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마지막 명제로 이끈다: **개인들은 항상-이미 주체들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항상-이미 주체인 주체들에 비하여, 종상적이다. 이 명제는 하나의 역설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체가 항상-이미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주체라는 것은 단순한 현실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고 전혀 역설이 아니다. 개인들이 항상-이미 주체인 주체들에 비하여 항상 '주상적'이라는 것을 프로이트는 단지 하나의 '탄생'이 '행복한 사건'에 대한 기대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관습에 의해 둘러싸이는가를 지적함으로써 보여주었다. 누구나 곧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지는지 알고 있다. 아주 산문적으로 말해서, 만일 '감정들', 즉 그 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기다려지는 가족적인, 즉 아버지의/어머니의/부부의/형제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들을 제거한다면, 그가 우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의 신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에 아이는 항상-이미 주체로서, 수태 이후 아이가 그 속에서 '기다려지는' 특수한 가족 이데올로기적인 모습에 의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임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적인 형상이 그 단일성 속에서 이전의 미래-주체는 '그의' 위치를 '발견'해야 하며, 즉 그가 이전에 이미 그것의 성격 주체(소년 혹은 소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구속과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사전-할당 그리고 생육이나 이후 가정교육의 모든 관습들이 성의 생식 '단계'와 '생식 이전' 단계라는 형태들 속에서, 따라서 프로이트가 그 결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설정했던 것을 '포착'한 속에서, 프로이트가 연구하였던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점 또한 제쳐두자.

한발짝 더 나아가보자. 현재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호명을 상연하는 '배우들'과 그들 각각의 역할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구조 자체 속에서 반영되는 방식이다.

## 일례: 기독교의 종교 이데올로기

모든 이데올로기의 형식구조는 항상 같은 것이기에, 여기서는 도덕적·법적·정치적·미학적 등등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동일



한 논쟁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종교 이데올로기라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단 하나의 예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따라서 기독교의 종교 이데올로기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수사학의 형태를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할' 것이다. 즉 기독교의 종교 이데올로기가 그것의 두 성서와 신학자들, 설교 속에서만이나 아니라 그 실천·판례·의식(儀式) 그리고 성서(聖書)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위구적인 담론 속에 정중할 것이다. 기독교의 종교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말한다: 나는 너, 피에르라고 불리는 한 개인에게(모든 개인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그가 아니다) 신이 존재하며 너는 신에게 대답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 나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덧붙인다: 나의 목소리(말씀)을 모은 성서, 그것을 전달하는 전통, '미모한' 점들에서 전통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교황의 무오류성)를 통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신이다. 그것은 말한다: 이것이 바로 너다. 너는 피에르! 이것이 너의 기원이다. 비록 네가 예수 그리스도 후 1920년에 태어났더라도 너는 영원하신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것이 세계 속에서의 너의 위치다. 이것을 통해 네가 '사랑의 율법'을 준수하게 된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너 피에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동등.

그런데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평범한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종교 이데올로기가 피에르라는 한 개인<sup>19)</sup>을 부름, 즉 신의 명령에 자유로이 복종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한 주체로 만들기 위해 호명함으로써 개인들을 '주체로 변화시

19) 개인이 항상 이미 주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생산하는 대비효과로 인해 적절한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키기' 위해 그에게 말을 건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일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개인적인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들이 항상 이미 주체로 호명되고 있다는 사실(파스칼의 그리스도가 "내가 이러한 핏방울을 흘리는 것은 너를 위해서다"라고 말할 만큼)을 알고 있다면; 만일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래서 주체가 "예, 바로 집니다!"라고 응답한다면; 만일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말하듯, 즉 교정된 거주지(residence)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인지——이 눈물의 계곡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노동자·사장·군인입니다!"라는——를 얻어낸다면; 만일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로부터, 그들이 '신의 명령' 즉 사람이 된 율법을 준경심으로 다루는지 경멸로써 다루는지에 따라 어떤 운명(삶 또는 영원한 형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인지를 얻어낸다면:——만일 이 모든 것(세례·전진성사·영성체·교회성사·종부성사 등과 같은 관습의 실행에서)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절차'가 기독교의 종교적 주체들을 등장시키면서도 하나의 이상한 현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토록 많은 가능한 종교적 주체들이 절대적인 '다름 주체' 곧 신이 존재한다는 절대조건하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문자의 주체(Sujet)를 대문자 없는 보통의 주체들(sujets)과 구별하기 위해 '주체'라고 씀으로써 이 새롭고 독특한 주체를 지시하도록 하자.

그러면 개인들의 주체로의 호명이, 그것의 '이름'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모든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어떤 중심적이고 '유일한 다른 주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이 모든 것은 상징이라 불리는 글 속에 명백하게<sup>20)</sup> 띄여 있다. "그때에 주님

20)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과 사실에 따라" 결정한 방식으로 인용한다.

(아해)이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절니다’ 모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인 모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나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를 가장 뛰어난 ‘주체’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나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의 호명 자체에 의해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개인, 즉 모세라 이름붙여진 개인을 호명하는 존재로서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의해 호명되고 불려진 모세는 신에 의해 불려진 것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주체, 신의 주체, 신에 종속된 주체, ‘주체’에 의한, 그리고 ‘주체’에 종속된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종거로서 그는 신에게 복종하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

따라서 신은 ‘주체’이고 모세와, 신의 백성인 수많은 주체들은 신의 대화자-피호명자, 즉 그의 거울들이고 반영물이다. 인간들은 신의 행상에 따라 창조되지 않았던가? 모든 신학적인 성찰이 증명하듯이, 신이 인간을 없이 완벽하게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신을 필요로 하고 주체들이 ‘주체’를 필요로 하듯이 신은 인간들을 필요로 하고 ‘주체’는 주체들을 필요로 한다. 더 정확히; 신은 인간들을 필요로 하며 대‘주체’는 주체들을 필요로 한다——심지어 그의 이미지가 그들 속에서 꿈적하게 전도된 때(주체들이 방탕, 즉 죄악 속에서 뒹굴 때)조차.

더 정확히; 신은 그 자신을 이중화시켜 그의 ‘아들’을 그에 의해 “버림받은” 단순한 주체(감람산에서 못박혀 죽을 때의 기나긴 탄식), 주체이지만 ‘주체’ 인간이지만 신으로서 명 위에 보낸다——최후의 ‘구원’을 예비하는 것(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신은 스스로를 인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주체’는 주체들, 즉 만일 그들이 주체로서 ‘주체’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주님’의 품으로, 다

시 말해 ‘주체’<sup>22)</sup>에게로 돌아가기 위함일 뿐인 그러한 주체들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성 도마를 보라)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주체’가 주체로, 그리고 ‘주체’ 그 자신이 주체-‘주체’로 이중화되어야 하는 이 놀라운 필요성을 이론적인 언어로 해독해보자.

우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체’의 이름으로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반사적인 것, 즉 거울구조, 그것도 이중으로 반사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반사의 이중성이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며 그 기능을 보장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집중된 것이고, ‘절대적 주체’가 ‘중심’이라는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서,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현재의 혹은 미래의)를 응시할 수 있는 ‘주체’ 속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과 ‘그’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 ‘가족’(‘신성가족’: ‘가족’은 본질적으로 신성하다)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이 그 속에서 그의 가족을 인지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인지한 이들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주체들을 ‘주체’에 종속시키는 이중의 반사적인 관계 속에서) 무수한 개인들을 주체로서 그의 주위에 호명한다. 이데올로기의 일반에 대해 발견한 것들을 요약해보자.

이데올로기의 이중화된 반사구조는 다음의 것들을 동시에 보장한다.

- 1) ‘개인들’의 주체로의 호명.
- 2) 그들의 ‘주체’에의 종속.
- 3) 주체들과 ‘주체’간의, 그리고 주체 자신들간의 상호적인 인지,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한 주체의 인지.<sup>23)</sup>

21) 삼위일체설이라는 교리는 ‘주체’(성부)의 주체(성자)로의 이중화와 그들의 반사적인 관계(성자)에 관한 이론 자체다.

22) ‘보편적 인지’——불행하게도 그것은 ‘절대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끝난다——의 ‘이론가’인 한에서 헤겔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데올로기의 훌륭한 이론가다. 포이에르바히는 반사적인 관계——불행하게도 그것은 인

4)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으며, 그리고 주체들이 스스로 누구인지 또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차린다는 조건하에서만사는 잘 될 것이다라는 절대적 보증——“그대로 될지이다.”

결론: 이러한 4중의 체계(주체로의 호명/‘주체’에의 종속/보편적인 인지/절대적 보증) 속에 사로잡혀, 주체들은 ‘활동한다.’(억압적) 국가장치의 이터지러한 분절대의 개입을 아끼시키는 ‘나쁜 주체들’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그들은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완전히 혼자서 활동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주체들은 ‘완전히 혼자서,’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그 구체적인 형태들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속에서 실현된다)에 의해 잘 활동한다. 그들은 AIE의 관습들에 의해 지배되는 실천들 속에 편입된다. 그들은 존재하는 사물들의 상태(das Bestehende), 즉 “그것은 분명히 바로 이터하며, 처리하지 않다”는 것, 그가 신, 그의 의식·사제·드물·사장·기술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는 “주위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인지한다. 그들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행위는 그들의 놀라운 기도말이 삶으로 삼입된 것에 다름아니다: “그대로 될지이다!”

그렇다, 주체들은 ‘완전히 혼자서 활동한다.’ 이 효과의 모든 신비는 우리가 방금 말한 4중구조의 처음 두 계기에, (또는 여러분이 더 좋아한다면) 주체라는 용어의 모호함(suppl.)은 ‘주체’라는 의미와 함께 ‘신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역주)에 관련되어 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주체는 사실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유로운 주체: 자신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책임지는, 이니셔티브의 중심; 2) 상위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므로 자유로이 그 복종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종속된 존재. 이 두번째 언급은 우리에게 이 모호성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 모호성

인간적 본질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끝난다——의 광장한 ‘이론’이다. 보증의 이론이 무엇에 의해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피노자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

을 산출하는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은 ‘주체’의 명령들에 자유롭게 종속되도록, 그러므로 그의 종속을(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그러므로 종속의 재스처와 행위들을 “완전히 혼자서 수행”하도록, (자유로운) 주체로 호명된다. 오직 종속에 의해서 그리고 종속을 위해서만 주체들은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완전히 혼자서 활동하는’ 이유다.

“그대로 될지이다!” ..... 획득해야 할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 사태가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도 바깥에서, 즉 이데올로기적 개입 바깥에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사물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풀어말하자면)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생산과 유통의 과정들 안에서까지)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 다시 말해 노동의 사회적·기술적 분할에 의해서 생산 속에서 착취·억압·이데올로기화·과학적 실천 등의 지위를 할당받은 개인-주체들의 행위 속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되어야 할을 입증한다. ‘주체’와, 주체들로 호명된 개인들의 반사적 인지 그리고 ‘주체’에 의해 주체들에게 주어진 보장이라는 이 메커니즘에 있어서 주체들이 ‘주체’의 ‘명령들’에의 종속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었는지의 여부가 실제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 메커니즘 속에서 문제가 되는 현실, 인지라는 형태를 자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현실(이데올로기=인지/물인식)이란 사실상 최종심에서 생산관계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의 재생산이다.

(1969년 1월~4월)

[추 기] 이 도식적인 몇 가지 체계들은 상부구조의 기능과 그것이 하부구조 속에 개입하는 방식의 몇 가지 측면들을 해명하도록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명백히 추상적이며, 중요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놓는다. 그에 관해 약간 언급해야겠다.

1)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을 실현하는 과정 전체의 문제. AIE들은 이 과정의 요소로서 이 재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단순

한 기여라는 관점은 여전히 추상적인 채로 남아 있다.

재생산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생산과 유통의 과정 속에서일 뿐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그들에게 각각의 직위가 할당되는 이러한 과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실현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들(무엇보다 모든 법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행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내적인 메커니즘 속에서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아직도 추상적인 채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제국사회에서 생산관계란 착취관계, 그러므로 적대적인 계급들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최종적인 목적인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은 그러므로, 노동의 '기술적 분할'의 다양한 직위 속에서 개인들을 형성하고 분배하는, 단순한 기술적 작용일 수 없다. 사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속에서가 아니라면) 노동의 '기술적 분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의 모든 '기술적' 분할, '기술적' 조직화란 노동의 사회적(계급적) 분할과 조직화의 형태이자 가면이다.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이란 그러므로 계급의 기획일 뿐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을 피착취계급에 대립시키는 계급투쟁을 가로질러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가 계급투쟁의 관점에 서지 않는 한,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이 실현되는 과정 전체는 추상적인 채로 남는다. 재생산의 관점에 선다는 말은 그러므로 최종심에서 계급투쟁의 관점에 선다는 말이다.

2) 하나의 사회구성체 속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들의 계급적 성격의 문제.

이데올로기 일반의 '메커니즘'이 그 하나다. 우리는 그것이 몇 마디로 표현되는 몇 가지 원칙들로 한정됨을 보았다(그것은 맑스와 같이 생산 일반을, 혹은 프로이트에게서 무의식 일반을 규정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빈약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재적인 이데올로기 구성체에 비해 이 메커니즘은 추상적이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들이 기관들과, 그 관습 및 실천들, 즉 AIE 속

에서 실현된다는 생각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그것들이,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이며 지배계급에 있어 사회적인 계급투쟁의 이러한 형태에 기여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 관점조차(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추상적인 채로 남는다.

사실, 국가와 그 장치들은, 계급억압을 보장하며 착취와 그 재생산의 조건들을 보증하는 계급투쟁의 장치와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관점 바깥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적대적인 계급들 없는 계급투쟁이란 없다. 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을 말하는 것은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반항 그리고 계급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AIE가 이데올로기 일반의 실현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충돌 없는 실현도 아닌 이유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되는 것은, 하늘의 운송에 의해서도, 국가권력의 단순한 장막 덕분에 아니다. 그것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실현되고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AIE를 설치함으로써이다. 그런데 이 설치하는 완전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부단하고 지난한 계급투쟁——우선 구지배계급들과 그들이 과거의 AIE와 새로운 AIE 속에서 가지는 입장들에 대항하는, 그 다음에는 피착취계급에 대항하는——의 목적이다.

그러나 AIE 속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이러한 관점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실, AIE 속에서의 계급투쟁이란, 계급투쟁들의 (때때로 중요하고 징후적인) 한 측면이다: 예컨대, 18세기의 반종교 투쟁 그리고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교육 AIE의 '위기'. 그러나 AIE에서의 계급투쟁이란, AIE를 넘어서는 계급투쟁의 한 측면일 뿐이다. 집권계급이 그 AIE 속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는 진정한 AIE들 속에서 '실현'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피지배계급이 그러한 AIE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데 성공한 이데올로기 또한 AIE들을 넘어서는 않다.

하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구성체 속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급들의 관점, 즉 계급투쟁의 관점에서일 뿐이다. AIE 속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현과, AIE를 그 장(場)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계급투쟁의 형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에 의거해서일 뿐인 것만이 아니다. AIE 속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현과, AIE 속에서 실현되고 그것에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무엇보다 바로 그것에 의거해서다. 왜냐하면 만일 AIE들이 그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형태, 그리고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자신을 측정하고 대립해야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데올로기들이 '생겨나는' 것은 AIE를 속여서가 아니라 계급투쟁 속에 사로잡힌 사회계급들로부터, 그들의 존재조건, 실천 그리고 투쟁경험 등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1970. 4.]

## 이미앵에서의 주장<sup>1)</sup>

“실명의 변증법적 형식은 그것이 오직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정확하다.”

— 랑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내가 쓴 글들 중의 어떠한 것도, 예컨대 『몬테스키외』라는 소논문도, 『람스를 위하여』의 논문들도, 그리고 『자본론 읽기』의 두 개의 장(章)도, 하나의 테제에 입각하여 씌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6년 전인 1949~50년에 나는 이블리프 씨와 안켈레비치(Jankélévitch) 씨에게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와 철학』에 관한 (흔히 말하듯) 대명제와 J.-J. 루소에 관한 소명제에 대해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몬테스키외에 관한 나의 에세이가 입증하듯이 사실 나는 결코 이 계획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 제시된 텍스트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때 이미 나는 공산주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랑스주의자가 되고자,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랑스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나는 18세기의 철학과 정치에 관한 작업을 랑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교육으로 받

1) 1973년 6월 피카르디 대학의 심사위원회 앞에 『몬테스키외: 정치와 철학』,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적 선언문』, 『람스를 위하여』, 『자본론 읽기』 등을 제출하였다. 『맹세』 183호(1973년 10월).